

# 영국도 미국도 베스트 11

### 손흥민, 영국 공영 BBC·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26)이 영국 BBC와 미국 ESPN 등 유력 미디어 선정 2017~2018 EPL 23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5일(한국시간) 영국 공영 BBC와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선정한 EPL 23라운드 베스트11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사진 정중양)

BBC는 "토트넘이 에버턴을 4-0으로 꺾으며 4위권을 추격한 가운데 손흥민이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며 "기록보다 훨씬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시종일관 힘이 넘치는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누볐다"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14일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리그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

기록의 사나이 됐다.

지난해 12월10일 스토크시티와의 16라운드를 시작으로 12월14일 브라이튼 호브 앨비언전(17라운드), 12월26일 사우샘프턴전(20라운드), 이날 5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2라운드)에 이어 이날까지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에 앞서 2004년 제메인 데포가 달성한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은 역대 토트넘 선수의 리그 홈 최다 연속 경기 골 기록이다.

BBC는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이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 중 하나가 손흥민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손흥민이 에버턴과의 경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높은 기량과 가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BBC가 선정한 베스트11 가운데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손흥민을 팀 동료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진 베스트11에 선정한 ESPN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안정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 익산시청 펜싱선수단,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 금1·은2 획득

익산시청 펜싱선수단이 지난 11일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2018 전국 남·녀종목별 오픈펜싱 선수권대회와 경기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새해 벽두를 활짝 출발했다.

여자 사브르 김지연 선수는 13일 벌어진 서울시청 윤지수 선수와의 개인전 결승전에서 15-12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다음날 벌어진 사

브르 종목 단체전(김지연·황선아·임수현·최신희 출전) 결승에서 실업 강호 안산시청을 45-28로 여유롭게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전날의 아쉬움을 날려버렸다. 남자 에페 선수들은 단체전(권영준·송재호·나종관·양운진 출전) 준결승에서 한국체대를 45-39로 꺾으며 금메달의 희망을 밝혔으나 결승전에서 화성시청에 42-45로 패하며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출전 선수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되어, 메달 획득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중에도 좋은 성적으로 새해 첫 출발을 하는 펜싱팀에게 축하를 보내며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여 오는 10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주시어 주 개최도시 익산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기자

## 전북 현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 영입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브라질 출신의 검증된 공격수 티아고(25)를 영입했다.

전북은 15일 "사우다드 리베이라 알 힐탈 소속이었던 티아고와 3년 계약에 성공했다. K리그 최고의 공격진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선수 특유의 유연함을 이용한 측면 돌파와 순간 스피드를 겸한 드리블이 장점인 티아고는 주무기인 왼발에서 나오는 크로스가 날카롭고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티아고는 브라질의 명문 산토스FC의 유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프로에 데뷔해 브라질의 아메리카 미네이루, 파라나 등에서 활약했다.

2015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하며 K리그 무대를 밟았다. 2015시즌 후 성남FC로 자리를 옮긴 티아고는 2016시즌 전반기 19경기 출전에 13득점 5도움의 뛰어난 기록으로 능력을 입증했다. 그해 여름 사우다드 리베이라 명문 클럽 알 힐탈의 러브콜을 받고 이적했다.

전북은 "포항과 성남에서 뛰며 K리그 검증받은 티아고는 기존의 이등국 김신욱, 로페즈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에 힘과 스피드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 최강희 전북 감독은 "티아고의 합류로 팀의 측면 공격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기존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티아고는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 이상을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 방탄소년단, 네번째 글로벌 팬미팅 성료... 4만명 운집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네 번째 공식 글로벌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15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 13~14일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아미(ARMY) 47만 팬미팅 BTS 4TH 머스터 [해피 에버 에프터]를 열었다.

개그맨 김생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팬미팅의 주제는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행복한 기억'이다.

그 동안 함께 쌓아온 기억들을 추억하고 이야기하며 서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빅히트는 전했다.

또한, 아미가 기억하는 방탄소년단의 최고의 무대 의상을 맞추는 코너, 리듬 게임 등 팬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고척돔을 찾은 팬들을 위해 여타 공연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홀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리메이크 해 화제가 됐던 컴백 홀 단독 무대는 물론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돋보였던 '파이프 파이퍼(Pipe Pipe)'.



방탄소년단은 지난 13~14일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아미(ARMY) 47만 팬미팅 BTS 4TH 머스터 [해피 에버 에프터]를 열었다.

그 동안 아무 없이 노래만 선 보였던 베스트 오브 미' 안무를 공개했다. 이밖에 '노 모어 드림' '마이크 드림' 'DNA' 등 히트곡 무대도 선사했다.

빅히트는 "고척돔을 가득 메운 4만여명의 팬들은 뜨거운 함성과 응원으로 화답하며 감동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팬들과 가깝

게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점점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느낌"이라며 "이제까지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다. 영원히 함께 행복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팬미팅은 지난 12월 티켓 오픈 당시 4만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방탄소년단의 티켓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뉴시스

## 맨시티, 무패행진 막 내려... 리버풀에 3-4 시즌 첫 패

맨체스터 시티의 무패 기록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상대는 '전통의 명가' 리버풀이다. 맨시티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4로 패했다.

리그 개막 후 22경기에서 20승2무를 기록하며 무패 우승까지 바라봤던 맨시티는 리버풀에게 시즌 첫 패를 당했다. 승점 62(20승2무1패)로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7·14승5무3패)에 15점 앞선 선두는 유지했다.

전반은 1-1로 마쳤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리버풀의 일렉스 옥슬레이드 웬벌레인이 선제골을 넣자 전반 40분 브로이 사네가 동점골로 대응했다.

후반 중반 리버풀의 화력이 폭발했다. 후반 14분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존 스톤스와의 경합을 이겨낸 뒤 그립같은 침착으로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자 3분 뒤 사티오 마네가 원발 중거리



리 슈트로 화답했다. 후반 23분에는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로 뽑힌 모하메드 살라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 장거리 슈트를 성공시켜 4-1을 만들었다.

다급해진 맨시티는 후반 막판 두 골을 따라붙었지만 패배를 피하지 못했다.

에이스 필리페 쿠티뉴를 FC바르셀로나(스페인)로 떠나보내며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리버풀은 맨시티라는 최대어를 낚는데 성공했다.

승점 47(13승3무2패)로 순위를 3위가 지 끌어올렸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